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鎭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FAX: 703-0755

銀行계로番號 7500875
對番口座 010017-31-0621565

[1] 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3월 1일

第192號

同窓會 총회원수 21만명으로 늘어

第48회 母校卒業式典 26일 거행된 졸업식에는 同門인 金泳三大統領이 참석, 졸업식은 祝祭 분위기로 가득찼다. 이날 새會員으로 5천 8백 95명이 탄생해 총회원수는 20만 7천 1백 15명으로 늘었다.



冠岳春秋

새로 서울대학교同窓會 회원이 된 學士, 碩士, 博士 여러분을 환영한다. 우리 서울대학교 동창회원이 21만명을 육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韓國의 역사발전과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서울대학교를 거쳐 사회에 배출된人材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각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역사발전의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出身들이 政府, 國會, 企業界, 金融界, 學界, 言論界 등에서 중요 직책을 차지하여 韓國을 이끄는 주도세력이 되고 있음은 自他가 공인하는 바이다. 특히 서울대출신인 金泳三大統領이 文民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울대의 역사적位相과 實務가 더욱 무게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나라의 발전은 서울대인의 각성과 분발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서울대학교同窓會는 앞으로 世界化 開放化를 통한 先進國진입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개혁과 변화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대한 召命을 안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동창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요청하는 시대적 召命에 부응하여 우리가 reflex하고 넘어갈 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서울대동창들은 우리나라의 최고학부를 나왔다든 사실때문인지 지나치게 자만하는 기질이 있다. 이런 엘리트意識은 어떤 면에서는 권장할만한 측면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共存共生해야 하는 民主국가에서는 和合과 團結을 다지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 서울대동창들은 사회생활을 共同體 생활에서 조직에 대한 귀속감과 단결력이 미흡한 점도 있다. 동창간의 연대의식과 희생정신도 희박하다. 특히 서울대출신 인사들은 조직과 사회

新入會員을 迎入하면서

의 잘못된 흐름과 풍토를 개선하려는 의식이 희박하고 행동면도 부족하다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대체로「예스」라고 말하는 서울대출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출신의 참여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동창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서울대출신은 다른 대학출신에 비해 創業者 開拓者정신이 뒤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財界를 보더라도 스스로 기업을 창업, 一家를 이룬 사람은 本會를 창회장인 崔主鎭, 우성그룹회장, 李秘爽, 國海상회회장, 故朴斗雲, 斗山그룹회장 등 불과 몇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서울대출신들이 더욱 더 국가운영의 핵심적기회를 담당하려면 단순히 조직내의 구성원에 머물지 않고 개척정신과 창업정신을 발휘,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는 變身의 기질을 기르려야 안될것 같다. 지금 세계는 변화와 개혁,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이와같은 세계의 변형에 맞춰 서울대출신들이 창의와 돌파력으로 리엔지니어링과 리스트러치의 役軍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제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목표의 달성도 서울대출신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국제적 감각과 자질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부단히 세계의 變革을 직면할 배우고 몸에서 국제인의 자질을 기르지 않으면 서울대출신들의 立地는 弱화될지 모른다. 서울대학교의 국제랭킹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대학에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대사람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백명에 불과한 서울대의 국제적位相을 높여 보면서 끊임없는 實力배양과 축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同門들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때 서울대의 긍지와 명예가 더욱 돋보일 것이다. 新入회원들의 건승을 빈다.

서울大學校同窓會 會長 崔 主 鎬

李根植(64) 준우
 승.. 魏在勳(58) 3위.. 李
 戴興(61) ▲C조 준우..
 李甲淳(61) 준우.. 高昌
 舜(57) 3위.. 成相哲(73)

會員名簿등 각종사업 적극추진

水原支部 94년 第1次 理事會 개최

지역同窓會 활성화
環大院 理事會서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柳元圭)는 지난 2월3일
상록회관에서理事會를개



農大、事業計劃화정

基金1억원 조성도

한 20여명의 이사가 참석
한 회의에서 柳희장이『계
화본동화』의 사상을 일괄하
추진하고 지역동화회의의 활
성화를 위해 지은책제의
강화가『계화본동화』라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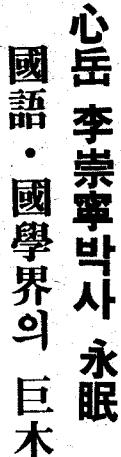
事業・決算報告 승인

浦項新入會員에 기념품도

정기(定期)인도(人導)에 따라 이
산들의 양해를 상호하기로
하거니 한편 지방자치회의
財政支援(財政支援)이며 또다
르가 자립하는 일과 한 해 비
중의 영향을 지역공동체에
지양되리라 결의했다.

신임회장 黃善灝 동문 선임

藥大同窓會 정기총회 열어

[illegible]

을 즐겨 대한 신의 연맹
장까지 지내기도 했
호방한 응승과 자신
이 넘치는 목소리가
이할만큼 번성을 화자
서의志操와 근기로
활해 왔다.

그는 학문에 정진하면
도 겹도, 수염, 스케
트에 이르기까지 만능
모조객이었고, 평생을

[illegible]

키로 결의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지주들이 본래의
政支援방안으로 해고

과장화근의 확대조성을
이해하여 회비납부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

에 따라 다양한 의견

20여명의 이사가 참석
회의에서 柳희장이『계
한문헌』을 소개한 뒤 이

이날 柳河장을 비롯, 金

94년도 동경총회사업추진

살을 가졌다.

역同窓會 활성화

環大院 理事會서

69명의 신임위원들에게 개초키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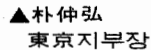
—인생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東京・大阪・福岡
創立總會 개최

會長團現地서 독려, 同門結束을 強調

이날 孔魯明(동문 61년)
法大卒 駐日本大使은 환
영사를 통해 『팔론』과령에
도 불응하고 직접 찾아준
崔희장과 회장단에게 김용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 한
뒤 『日本支那의 支部結成

항공사
운영
베테랑



신임 朴仲弘(희장은
지난 55년 모교法大를
졸업하고 同和通信社
(現聯合通信)에 입사
記者로 활약하다가 D
고교英語教師를 하는 등
풍부한 언어인식력을

記者출신의 正統派

발휘, 당시 치열했던
의국항공사에 발탁돼
CATHAY 항공, 日
본항공들에 다년간 근무
해왔다.

大韓航空으로 자리를
옮겨 大阪空港、福岡空
港、成田空港지점장을
거처 현재 大韓航空이
사점 東京空港지점장을
점진하고 있으며 成田
AOC議長、七空會회
장도 맡고 있다.



▲東京支部 창립대회를 마치고 (앞줄 왼쪽 4번째부터 孔
魯明대사, 崔회장, 朴仲弘지부장, 徐廷和부회장, 鄭宗澤상임
부회장)

과 同門紐帶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고 밝
다.

또 崔정환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먼저 참관모이
아 할 日本지역지부가 이
제야 활동을 시작하게 됐
다면서 『海外支部중 東京
支部가 활동을 이뤄 모

법이 돼 달라'면서 母校가 세계속의 大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듯이 東京支部도 세계화를 이뤄서 서울大人の 급지와 명예를 드높이자고 역설했다.

문종초에 노획해온 朴仲弘
들(55년 法大卒 KAL
成田空港支店長)을 만났을
지로 선임했다. 심일 박회
장은 인사말에서 『支店長
으로 선임된 것을 개인 명
예에 그치지 않고 더욱 분
발(發奮) 노력(努力)과
에 헌신하겠다』고 피력하



▲大阪支部 결성을 마치고(앞줄 왼쪽부터 曹 爽사무처장, 徐부회장, 崔회장(4번째), 朴基隆지부장)

면서 회원의 자비화대는 물론 同窓會 발전에도 일익을 맡아 최선을 다하였다. 고 김정환:

특히 支部창립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해온 金昌基(충문 55년) 法大卒 駐日本大使館首席教育官의 노력과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충공 이 자라왔다.

또한 새로 선임된 임원인

년 丁大卒, 晉士과 鄭煥星(83년 人文大卒, 駐日大使館서기관)

◇大阪支部 11전날에 이어 崔화장 일행은 1월 27일 오전 9시 東京을 출발, 新幹線을 이용하여 新大阪驛에 도착 즉시 大阪도쿄호텔로 진행했다.

하오 7시부터 시작된 大阪支部차림소에서 朴鍾

뒤「각계각출에 흩어진在大阪동읍을 결집 모일렀수를 늘려가며 지부조직화 및 활동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의를 밝혔다.

한편 大阪지부의 결집에는朴忠勇(을)를 비롯, 李潤濟(을) 57년 工大卒 大阪駐在副總領事 李陵(을) 74년 法大卒 大字재판(株)大阪지점장 趙在愚(을)

長·林慶春(52년)工大入
三星電子 東京駐在사장
權鎔大(71년) 文理大卒 아
시아나항공(日本보유장) 鄭
貞儉(70년) 法大卒 駐日大
使館總務課長 ◆幹事·琴用
(79년) 商大卒 외환은행
과장·무하의(74년) 法大卒
하이에나(한자) 安長石 85

駐在總領事)은 화인인사를
통해 『同窓會 大阪支部의
결집』은 모두가 절감했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
면서 『本會 崔總장 일행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을 계기
로 이 지역의 동문들이 합심
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 다
들스럽게 생각한다』고 고

다는 후련이다.
 ◇福岡支部 계승되는
 지부결성의 행안으로도
 이 풀릴 사이가 없었음에
 도 회장단은 1월29일 大
 阪을 떠나 오후1시 福岡
 市 하카타驛에 도착, 柳昌
 株을 72년 法大卒(株

이러 崔衡장은 인사말에서 美州 및 유럽지역 등 海外支部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日本지역의 지부결성이 뒤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양간의 우의와 단합이 어느 지역보다 뒤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大阪지부의 조직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장선출에 들어가 朴基隆(음보 64년) 商大卒(株)신양 재판代表理事)을 선출했는데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本會회장단의 방문을 계기로 지부결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선두를 꺼내

등의 영장을 받으며 하이트리젠시호텔에 영장을 풀었다.

저녁 7시부터 시내 韓食 레스토랑「金剛園」에서 열린 福岡支部 결성 축하회에는 福岡駐在總領事 禹鍾漢은 64년 文理大卒인 本會 회장단의 일원지역 지부 결성巡訪에 대해 감사하는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날 崔 회장(在福岡동무들의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대한 열의에 치하를 하듯 「異國園」에서 각각하는 영의 달라고 서울大人이라는 글자와 자부심을 갖고 福岡支部의 조직과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國威宣揚 앞장서는



▲禹鍾漢
福岡지부장

외교무대의 熱性派

▲禹鍾漢
福岡지부장

禹지부장은 지난 70년
 의무부에 들어가 駐美
 스터領事, 駐日 神戶領
 事들을 거쳐 93년 4월
 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또 台灣의 國立政治大
 學에서 政治學博士학위
 (93년)를 받기도 마 있는
 禹지부장은 大統領表彰(87
 년) 國務總理表彰(81년)
 을 받기도 한 모범공무원

貿易業務一家이뤄
現地定着회사경영

▲朴基隆
大阪지부장

商事에서 두루 요지를
거쳐 東國商事株 大
阪점자법인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日本에 거주
해 왔다.

차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9년부터
大阪에서 직접 株式會
社인양 재팬이라는 무
연체를 설립, 경영해
오고 있으며 부인辛幸
惠(여사 50)와의 사이
에 3녀를 두고 있다.

一家이뤄
회사경영

새로운 문을 여는 진지한 출발로



朴勝美
看護大學
간호학과

겨울이 채 가기도 전, 매서운 추위와 눈속에서 새해의 첫 꽃을 피우는 터프한 매화처럼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결심을 맞으며 바라본 캠퍼스에는 우리의 지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디며 많은 기대와 꿈으로 가득했던 1학년, 그 자고이었던 꿈은 다는 더 성숙하고 진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문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의 문을 열고, 새로운 문들을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아쉬움과 실례임을 동반하는 과정일 것이다.

힘을 모아 지친 모습으로 때로는 함께 기쁨을 나누어온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향기를 잃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는 부모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新入會員 졸업소감

冠岳의 뜻 이제야 알 것 같아...

同窓會는 지난달 26일 母校를 졸업한 新入會員 5천8백95명을 迎入했다. 젊음과 純粹로 一貫했던 冠岳의 門을 나서는 그들의 感懷어린 작은 所感과 抱負를 7명의 學部 출신 회원으로부터 들어본다.

首席의 영에 責任感으로 다가와



尹慧貞
農生科學大學
임산공학과

어느덧 후배를 맞이한 지 올해로 네번째다. 한해 한해 맞이할 때마다 나의 학년은 점점 높아갔고 결국 나가야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 졸업은 나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준다. 입학할 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수석 졸업이라는 영예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나를 돌봐 주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 덕분이다.

대학원 진학과 더불어 이러한 영광은 나한테 기쁨과 함께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필프 제지분야를 공부하기로 선택한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수석졸업의 글자에 걸맞은 전문인이 되고 싶다.

테크노스트럭처로 成長할 계획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철없이 어리기만 했던 4년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흥분을 안고 대학에 진학했었는데 벌써 졸업을 하게 된다니 기쁨과 함께 아쉬움이 교차한다.

앞으로 더욱 더 학업에 전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물론 그 이상까지도 진리 탐구에 열중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을 갖춘 테크노스트럭처로서 성장하고자 한다.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만들어 좀 더 넓은 세계로 유학도 가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싶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金泰昊
經營大學
경영학과

이제 비록 학교는 졸업하게 되지만 앞으로도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더욱 존경하며 따르고 후에 들어오게 될 후배들과도 和睦을 유지하면서 꺼지지 않는 금지를 지닌 영원한 서울대인으로 남고자 한다.

새 始作의 의미로 出發할 계획



崔榮恩
自然大學
수학과

4년이 지난 지금 무척대고 수화공부를 하겠다고 나섰던 때를 생각해 보면 참무식하고 용감했다는 생각이 가장 앞선다.

알고는 감히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1학년 때는 모든 문제는 내 힘으

로 내 머리로 풀겠다는 실로 어리석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밀려오는 정의(definition)와 정리(theorem), 지식의 홍수에 휩쓸려 그런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돌이켜보면, 세차게 흐르는 강물 밖으로 고개라도 내놓으려고 4년동안 허우적거리며 지냈다. 그 속에서 나를 격려하고 자극해주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專門人으로서 새 삶을 다짐한다



呂知晁
工科學大學
컴퓨터공학과

4년전 입학할 때도 컴퓨터는 매서운 바람으로 차갑게 추아해 주었고, 지금 부쩍 자리잡힌 나를 위한 바람으로 더 따뜻하게 한다.

학업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시켜주었다. 다 자란 해에 대한 고마와 감동, 불의에 대한 절망, 수석지만 무모하기도 했던 외침

들 그리고 잠시나마 절친 가슴을 설레게 했던 추억...

그러나 좌와 좌는 절망과 수석을 밟아도 한나를 허공으로 띄웠다. 리포트와 과제, 그리고 많은 시험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삶의 개성을 알리는 엄숙한 나팔소리였다.

차갑게 나를 맞아 또다시 키웠던 과학, 이 제 그 뜨거운 나날이 하나의 큰 뜻으로 너무도 진지하게 다가온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정을 지닌 전문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과학을 바라본다.

大學은 학문으로 향하는 試金石



金榮權
自然大學
화학과

「대학원에 서면」라는 책이 있었다.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신입생들에게 이런 류의 책으로 토론한 기억이 난다.

지금도 「대학원에 나 가면」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글을 써야 될 생각이다. 4년 동안의 시간 「나」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는지...

또렷하지 않은 나의 기억속에서도 떠오르는 몇가지 시도를, 함께한 사람들, 힘들었던 실험시간, 두꺼운 고물과 지저분한 주전자, 공식적 교수님들의 질문과 돈독이던 것들로 채운 이 시간들에 대해 조급한 의미 부여보다는 그 순간들에 대한 작은 실험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 나서는 대학원(많은 사람들이 들어올대) 학문의 길로 향하는 신념이 되기를 바란다.

自身の 모습을 되돌아보는 순간



姜錫兆
藥學大學
약학과

사람들은 인생변화의 순간에 실험을 써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자리옮김에 따른 불확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래서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추하를, 앞으로 걸 어갈 길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에 대해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유익스럽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자 한다.

지금 「나」의 지난 한해에 가장 자유로웠고, 진솔하고 순수, 열정 등 대학인의 진정한 면모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기에 매우 소중한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감사할 많은 분들을 떠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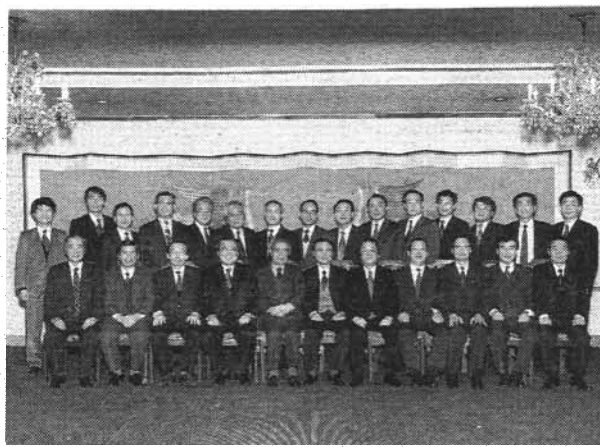
환상 「신용」은 대로 커준다는 땅의 의미를 가르쳐주시는 부모님,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해주시고 하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다.

清 法 會

서울대학교同窓會라는 거대한 조직 밑에는 각單科大學同窓會를 비롯하여 수많은 同窓會의 모임이 있지만, 이번호에는 그중 하나인 「清法會」라는 同窓會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清法會」란 清州高等學校出身의 法科大學同窓會를 말한다. 이 모임의 역사는 30년전인 1960년 대초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우선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前大法院長이었던 金德柱(25회) 法大10회 출신이고, 現國務總理인 李會昌(25회)도 비록京畿高等學校를 졸업했지만 6.25이전 시절에는 清州高等學校에서 修學한 바



▲鄭熙詒 교수를 모시고 기념촬영

있다. 政界에서는 現勞動部長官인 南載熙(25회) 法大12회이며, 그는 서울에서 출마 4選議員의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2選의 경력을 갖고 있는

法曹·政財에 指導者級 布陣

基盤확보로 獎學金지도 계획

하고 있는 鄭熙詒(25회)은 法大 18회 출신이다. 法曹界를 살펴보면, 金德柱(前大法院長)이외에도 현재 최고직인 鄭明來(25회) 8회를 위시해 黃鍾泰(9회) 金重煥(12회) 文永吉(13회) 朴昌來(13회) 閔丙國(15회) 李英學(16회) 池憲範(16회) 金良男(17회) 金洪燾(25회) 朴忠根(26회) 등 20여명의 同門이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가이로 總領事(19회) 安炳禹(經濟企劃院政策調整局長) 24회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學界에는 安鍾允(漢陽大 교수) 9회, 현재 清法會會長의 중책을 맡고 있는 金斗煥(崇實大 法大學長) 11회, 鄭東潤(高麗大 교수) 15회, 李相冕(모교 法大 교수) 27회, 文光三(釜山大 교수) 28회, 李勝鎬(忠北大 교수) 36회 등이 모두 그 탁월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4회) 朴熙象(대영모방 (주) 감사) (14회) 孫根碩(한제철(주) 부사장) (15회) 李良培(제일화재해상보험 (주) 전무) (17회) 李鍾大(라코(주) 대표이사)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清法會의 회원들은 매년 3, 4차례씩 모임을 갖고 선후배간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高等學校入試가 없었거나 서부터는 후배 清法會會員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되어,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 주고, 후배는 선배로부터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현재 清法會의 회장인 金斗煥學長이 말하고 있고, 金洪燾(25회)가 10년이상幹事를 보고 있다.

모임 採訪

함께 산을 오르며, 心身을 단련하고 同門間의 친목을 도모해온 서울대학교 齒大山岳會는 1958년 당시 모교 재학생이었던 創團멤버들에 의해 결성된 현재까지 이어져온 연륜으로 졸업생들과 재학생이 함께 기인, 활동하고 있다.

本會는 회원들이 한두명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일 定期山行을 진행하고 매월 세제주 목욕일 아침에 골목모임을 갖고 있어 회원들끼리 친인도 한달에 한두번이 아니라, 모교 행사에는 가족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장회의 경우에는 다른會員의 집안 哀喪事는 물론 삼십살이까지 꿔뚫게 돼 그야말로 「同門家族」이 되고 이런 점은 본회의底力으로 다양한 기획과 활동을 가능케 한다.

매달 정기산행을 해온 관계로 안가본 곳이 거의 없는 본會 회원들은 대부분 벼슬타령 산악인이며 그에 걸맞게 매달 정기산행을 마친 후에는 「山岳會消息」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해 산행소식과 수입, 지출보고 및 회원들의 動靜을 알리고 있는데 「회장님」의 현수님이 현한 코스에 도 잘 걸어서 있습니다. 「김영태(同門)이 후손이 없어 걱정이다」니 10월15일 첫이름을 얻었습니다」라는

등그 내용」本會의 부회기처럼 이기기가 아니다. 이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그 활동영역은 매우 넓어서 정기산행뿐만 아니라 겨울에 스키 여행, 여름에는 가족캠핑을 열고 있다. 또 한 번 일

많은 남이 붙여준 명칭이 실용적이거나 「노개반」로 통하는 李丙合(同窓)이

하말라야·에베레스트등 高山점령

회원 紐帶感 山行으로 굳어져

한 계획에 힘입어 해외로 산행을 겸한 여행도 자주 가고 있다. 85년 하말라야의 파미르통, 89년 에베레스트, 90·91년에 북할포스산, 수련 파미르코원의 의고루니즘등이 대표적 으로 등장한 산행이다.

오는 6월에는 美國 요세미티와 중국 천산등반을 계획하고 있고 李희장은 이미 北京, 延邊그리고 白頭山이라는 중국기행들을 써 증보판을 낸 바 있으며, 현안과 신희

변태(과)과 「징그러운정도로 열심」이라는 尹日重(同窓)과 「충무의 치밀」로 인해 과한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매년 定期總會를 개최하

고 2년마다 任員改選을 하는 본會는 年30여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는데 3백만원의 기금의 에도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들이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會에 환원 후배 재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會員數는 해외거주 동문들과 재학생까지 총 1백40여명이며, 본會를 이끌고 있는 任員으로는 會長에 金羽聲(충무치과) 姜佑坤(200구치과) 廉品培(영정배치과) 鄭相周(동문 顧問) 鄭相周(정상주치과) 鄭平九(김해치과) 金正均(김정균치과) 李時雨(이치과) 鄭寬喜(정원희치과) 鄭財務(孟亨烈(맹형렬치과) 鄭監事(洪澤龍(홍지과) 陳海允(진치과) 등이 애쓰고 있다. 또 지방支部도 결성되어 있어 嶺南支部會長에 薛昌煥(구치과) 동문 總務에 金權培(김준배치과) 동문 鄭在慶(조선대치과) 동문 鄭南支部長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본會에 慶事가 겹쳤다. 작년 金正均(김정균치과) 동문 齒協會長에 취임한 데 이어 朴祥均(박치과) 동문의 아들 鍾鎭均이 포항대 화학과와母校 齒大를 동시 합격했으니 모교 치대에 인연하기로 해 最初의 父子山岳會員이 탄생한 것이다.

齒大山岳會



▲가족동반으로 도봉산 정기산행

동하고 있으며, 역시 忠北知事, 內務部長官, 政務長官 執權(內務院) 院內總務, 政務委員等을 역임한 金宗鎬(25회)는 現役 3選議員으로서 法大 13회 출신이고 檢察總長과 法務部長官을 역임한 金錫鍾(25회)은 法大 11회 출신이다. 그의 3選의 경력을 갖고 있는 吳有邦(25회) 法大 17회이며 初選議員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行政府에는 朴魯株(駐베트남 大使) 11회, 朴松圭(法制處次長) 12회, 安光吉(特許廳長) 18회, 鄭泰賢(아주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나내고 있다.

會員중에는 實業界와 金融界의 인사도 상당수 있는데 李在秀(웅진관광개발 (주) 대표이사) 9회, 李鍾祿(성인전자(주) 대표이사) 12회, 洪明憲(아세아종합금융(주) 부사장) 13회, 權赫樹(신정전자(주) 대표이사) 13회, 李恒圭(국민신용가드(주) 부사장) 13회, 崔秉秀(아주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나내고 있다.

지난年初에 모교인 清州高에서는 獨語科目을 법대에서는 商法科目을 강의 하시다가 현재는 정년퇴임하신 鄭熙詒(25회)을 모시고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과거 學窓時節의 추억담을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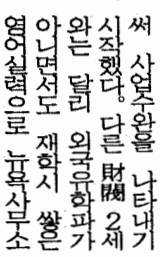
은 1)를 두고 있다.

또 하나의 부인인 實協의 顧客満足선언이므로 표현될 수 있다. 회원단체들에 구별하여서 과거의 잘못을 反省을 버리고 民間企業을 차림 顧客指向의 經營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具體의 이러한 實協 내부의 변신전략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민간부분에서의 通商증진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本會 부회장 및 文理大 정치학과 同窓會 회장을 맡고 있으며 78년 당시 本會회관 建立基金으로 5천 1백만원에 기탁한 것을 각별한 애정으로 同窓會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具體적인 도움을 주게 『사회 각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국제화의 전범 역할을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非營勤의장이지만 실근 회장이란 자세로 實協일에 몰두하였다는 具體적인 부인인 文樞와의 사이에 滋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정(滋濟)금전(金錢)부간(互換) 滋均(均平)과 교수(敎授) 1)를 두고 있다.



일에서 전향해온 것도 그가 實協의장으로 천거된 배경 중 하나로 꼽는 사람이 많다. 具東후는 財界元老인 사중 3당계 영어를 자유 자재로 구사하며 각종 국제관계회의에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 民間 外交使節로서 많은 일을 해왔다.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實協내부의 변신을 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具東후를 두가지의長期計劃을 밝혔다.

첫번째는 인직원을 확대한 國際化공요이다. 해외로

합천선인 칼라스사를 비롯
그의 결혼에 갑탄했다는
얘기는 지극히 인구에膾
다되고 있다.

89년 런던사 회창립
론 재계에서는 일찌감치

67년 런던그룹의 정경사업
참여시에는 호남정우의 創
業법대로 회사설립을 주
도, 74년 사장에 취임한
이래 89년까지 호남정우에
몰두했다. 호남정우의
가념이다. 그만큼 여러나
래에 일몰이 널리 알려졌
있으며 친분이 두터운 국
제적인 명소가 많다. 국제
회의에서 원고없이 연설을
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鄭承宰(55년 商大卒 全北銀行長) 22일 교
육 및 한술지흥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대한의 신장에
적임차 역할을 한 공적으로
전북대하고로부터 명예경제

委員) 二 勸導員을 充補코
 各을 다스리는 權限과 勸導의
 의 活性化를 꾀하기 위해 新
 法大9回산악회를 조직,
 동이이를 組織중이다.

（55日）法
大卒・韓國
日報百想
記念館長・
本會編輯

달 22일 함양대로부터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학박사호위를
받았다.

▲孫一根

(55) 大卒 起亞
工 會 長
本 會 副 會
長

나날 31일 습근총정표준연구
에 이바지한 공로로 3·1훈
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35
회 3·1문화상(화술부문)
수상자로 選定됐다.

▲李忠熙
(58) 文
理大卒 韓
國標準研
究院研究

選. 달 15일 열린 한국경제신문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被 官本會理事(事) 卽지난

和銀行行長に就任。

▲金鎮炫
(58) 文
理大卒 前
斗支處長

▲李在鎭
(57) 商
大卒 京南
引ス會長・
本會理事

▲趙東一(62년) 交理大學
母校教授 著『최근 여섯권의
「한글문화통사」(지식산업사)
刊 제3판을 出刊.

▲崔浩永(62년) 齒大卒 慶
熙大教授 著『최근 경희대학교』

러시이고 호운은 그 동생자였다.
소화술의 원리로 부터 한려
관계 증진 및 학술 교류에 기
여한 공로로 명예 박사호위를
받았다.

제치고 연구한 회 한국지부 제
12회 정종에서 차기 회장에
被選。

▲柳世熙(62년 文理大卒·
漢陽大 中蘇研究所長) 二 次 三

과연구학회 한국지부 제12회
정종 및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就任。

▲金哲偉(61년 齒大卒·母
交敦愛川) IADR 國

수(52년) 醫大卒 정년 퇴임
 년 학술대회를 개최

▲金英洙(61년 齒大卒)母
 校教授 || 최근 을링과 아호텔

▲金炳斗 (65歳) 大卒
教育監 本院
教育監 本院
理事

▲金光根(65년 齒大卒) 11
최근 美國 월셔 래디스호텔
에서 열린在美 한인芝加哥의
사학회 정총회에서 제13대 회
장에就任。

부로부터 황소근정훈장을 받았다.
 ▲朴昌洙(65년 商大卒·前
 長期信用銀行監事) 〓최근 한
 국투자증권(株) 사장에 遷任

최근 경제기호원 기호관리실
장에 就任。
▲尹成泰(65년 法大卒·醫
療保險聯合會長) 11월 11日 卒。

▲金仁煥(65년) 法大卒·前
 吳地政和常務 〓 崔仁吳地政
 이언트 專務로 昇進.
 ▲田允喆(65년) 法大卒·前

보통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의 눈으로 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기총회에

大 院 卒 業
協 中 央 會
長 本 會 理
事 二 次 長



校教授 11 초근 밀려오오어
 서 열린 「제9차 아시아 태
 평양가창학회」에 참석.
 ▲韓瀛鮮 (74년) 行

▲李孝錫(74년) 醫大卒. 母
東洋證券事務 || 최근 東洋先
進. 대표이사 부사장으로昇

前기 회예산담당과장 ॥ 최근
 의무부 국제발과과장에 就任
 했다.

惠淑(75년卒·첼리스트)·동문
과 함께 실내악단을 창단한
기념으로 지난달 20일 세종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크리

시.
*송재열공(93년 法大卒)
고미애양(3월27일 15시)
30분.
*이태진공(86년 師大卒)
남해진양(3월29일 14시).

*한현갑군(86년 法大卒)
오영석양 3월27일 12시
30분.
*한현조군(93년 自然大
卒)이영양양 3월27일 14

30년
*정인우군(90년 農大卒)
이정자양 3월 26일 14시.
*이흥우군 86년 人文大
卒(유)주양 3월 26일 15
시 0분.

*진문구(91년 人文大
卒) 박화영(3.월 20일 14
시)
*안홍일(89년 工大卒)
홍성안(3.월 26일 12시)

시 30분.
*황보상홍(92년 齒大)
卒)이시구양 3월 20일 11

▲李秉熙(48년) 文理大卒
中央大書總長 2월 27일 교육
개원위원회 위원장에
개원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원장에 재
선임되었다.



▲李兌榮(49년) 法
大卒 韓國
家庭法律
相談所長
本會理事

▲金宗西(49년) 師大卒
育開發院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白樂皓(49년) 音
大卒 母校
教授 本會
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光魯(51년) 工
大卒 母校
名譽教授
大學院同
窓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池應業(52년) 工大卒
洋工業專門大學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海東(53년) 法大卒
母校教授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安海均(54년) 法大卒
母校教授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崔鍾起(54년) 法大卒
母校教授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鄭明煥(54년) 文理大卒
성신여자대학교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善弘(54년) 文理大卒
성신여자대학교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韓相泰(55년) 醫大卒
2월 27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처장에 재
선임되었다.

▲金武培(56년) 文理大卒
2월 27일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1주년을
기념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金在誠(56년) 文理大卒
前東亞建設事務所 2월 27일
通運國際運送(株) 대표이사
에 취임하였다.



▲金德柱(56년) 法
大卒 辯護
士 本會理
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東圭(56년) 法大卒
前國會議員 本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崔俊鎬(56년) 法大卒
法務士 2월 27일 이노우에 아스
시(日小説家)의 단편소설 6
편을 「開牛」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洪性佐(56년) 法大卒
協同運動會會長 本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辛東韶(57년) 農大卒
母校教授 2월 27일 산업포장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에
추진되었다.



▲金鍾云(57년) 文
理大卒 母
校總長 本
會名譽會
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大淳(57년) 法
大卒 前總
信部長官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趙斗英(61년) 醫
大卒 母校
教授 本會
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閔哲泓(58년) 美大卒
母校教授 本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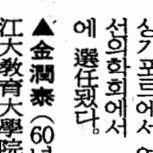
▲金福鎮(58년) 法大卒
韓國經濟新聞論說委員 2월 27일
서울대학교 협정교육원에서
열린 「서울 가톨릭 언론인
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추진되었다.

▲李結洙(59년) 商
大卒 第一
銀行長 本
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韓萬齊(59년) 醫
大卒 서울
大病院長
本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潤泰(60년) 師大卒
西江大教育大學院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朴相銀(61년) 商大卒
韓國리스產業協會會長 本會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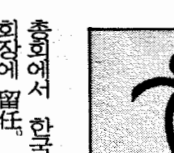
▲辛成梧(64년) 法大卒
前駐日大使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吳丙和(64년) 商
大卒 前建
榮創業投
資代表理
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尹德宇(64년) 商大卒
前東洋海運株式會社代表
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崔完秀(65년) 文理大卒
潤松美術館研究室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柳基範(65년) 法大卒
大宇(株)社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柱塔(63년) 工
大卒 現代
電子(株)
社長 本會
理事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昌大(67년) 工大卒
前吳大建設事務所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忠九(67년) 工大卒
前大宇(株)社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治應(67년) 農大卒
前吳大建設事務所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黃義康(67년) 農大卒
前吳大建設事務所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朴信雄(68년) 文理大卒
前기호에산단장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淳國(68년) 商大卒
前신호그룹회장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茂(68년) 農大卒
성신대학교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起受(70년) 農大卒
慶熙大學教授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高亮文(71년) 工大卒
蔚山大教授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郭贊浩(71년) 新大院卒
平統諮問委 城東區事務所長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民淑(76년) 音大卒
피아니스트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大雨(77년) 環大院卒
東一技術公社事務所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池慈蓮(80년) 音大卒
樂家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泰中(85년) 行大院卒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梁在武(86년) 音大卒
樂家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申金栢(74년) 農大卒
全北大教授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民淑(76년) 音大卒
피아니스트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李大雨(77년) 環大院卒
東一技術公社事務所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池慈蓮(80년) 音大卒
樂家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泰中(85년) 行大院卒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梁在武(86년) 音大卒
樂家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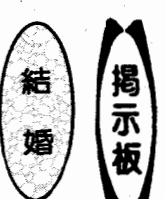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金炯順(72년) 音大卒
바리톤 2월 27일
한글학회 이사회의
총회에서 회장에
추진되었다.



同窓會館 冠岳廳

* 김재연(92년) 農大卒
연말연시 3월 1일 14시
* 황진규(91년) 工大卒
과명주양 3월 5일 12시
30분
* 김재연(91년) 人文大
卒 서수경양 3월 5일 15
시 30분
* 오종운(88년) 社會大
卒 장숙희양 3월 6일 12
시 30분
* 김홍철(89년) 農大卒
최소영양 3월 12일 14시
* 이상준(90년) 農大卒
김옥영양 3월 13일 12시
30분
* 허근(88년) 人文大
卒 권혜정양 3월 13일 14
시
* 배영민(89년) 經營大
卒 김성희양 3월 19일 12
시 30분
* 양대진(89년) 農大卒
장영정양 3월 19일 14시
30분

◆家政學

정수영	조세형	채재진	황진우
김정현	신동진		
▶미정리하가			
김민서	김민호	이영웅	고희복
김성영	박민수	박영규	박진규
배영호	유진택	유영호	유수진
유영진	이승희	이성희	이정규
정유진	정종호	정영하	조영하
조영하	조영진	조원진	한지수
조원진	조원진		
▶한기하가			
정영하	이정희	김정하	김영하
박영하	홍진하	이성호	이영하
이영하	김정하	홍진하	
▶이정하가			
한진	박정하	유영하	김정하
이영하	이영하	정영하	박정하
▶김영하가			
김민하	김영하	유영하	정영하
박영하	김영하	정영하	김정하
▶정영하가			
이영하	이영하		

이후에

최정환
홍무호

◆農學

▲ 신물병연구회

◆獸醫學

박선영 양곡관리

◇
教育學

[illegible]

서울 中区 小公洞 1番地
호텔롯데 2層 206號 (776) 1667 · 1366

預約 及 問議：702-2233~5

新入회원의入會를 환영합니다

서울大學校同窓會 會長 崔 主 鎬

소식

큰 절음으로 개인과 나라의 악곡들을 거침없이 열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泳三 대통령 참석 "적극적 思考 필요" 당부

만약 모교 졸업생의 참석
해 보란 감회를 어루스길
없다고 말하고 『다가오든
민중우비의 시기에 모교가
새로운 문예부흥의 요람이
되오라 하고 졸업생들이
어디를 갖고 두루룩 없나

洪性大동문 20억 出捐 약정

등 수리과학의 연구공작이
로 쓰이게 된다. 母校는
이 연구동이 완성되면 국
내외 저명한 수리과학자
초빙, 활발한 토론과 협

사회대등 18개학과 내년 실시

과학입학

에 기여

고출
주
題
가
棋
士
을

동서양名著총망라

프로女棋
바둑界 제
회에 女初段에 마지막 이력

프로女棋士 英文科 입학
바둑界 저변확대에 기여

을해 母校入試에서 女流三
棋士가 合格하여 棋界에서 話
題가 되고 있다.

主人公인 南治亨 18 무하여
고 출생 1화생은 수학능력 평가
시험에서 1백3점을 받아 人
文大 英文學科에 입학했다.

南治亨은 初段으로 90년 프
로로 入段했으나 入試준비로
이렇다할 성적은 올리지 못했
지만 중학시절까지 그녀는 아
마추어 최강자로 군림해 바둑
계에선 익히 알려진 이름. 南
初段은 89년 일본에서 열린 世
界女流아마추어바둑 선수권대
회에서 準優勝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棋手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세계대회 우승자의 여세로 이듬해 프두에 입단한 高2때까지는 棋力면에서 精進할 수 있었으나 大入주비관계로 바둑수업을 일시 중단한 채로 公務의 열악하여 모국의 棋壇 한적이다.

母校에 있는 현재 재학생을 중심으로 바둑모임이 활발할 뿐 아니라 東京大學과 연결아 韓日 전선바둑대회를 열고 있어 南조단의 영향이 재학생들의 棋力양성에 물론 바둑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5명 채용

모교는 93학년도 2학기
에 5명의 비서울대 출신
교수를 임용한 데 이어 올
해에도 4명의 비서울대
출신 교수를 신규 임용키
로 했다. 올해 새로 임용
된 비서울대 출신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東洋史學科 劉仁善(52)
고려대卒 ▲電氣工學科
趙炳賢(41) 캘리포니아대
卒 ▲行政大學院 盧慶秀
(39) 하버드대卒 ▲東洋書
科 鄭馨民(41) 웨슬리안대
卒이다.